

[종합·해설]



국회는 15일 정부위와 환경노동위 등 4개 상임위별로 열흘째 국정감사를 벌여 공기업 선진화에 따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통합 문제를 등을 집중 추궁했다.

“공기업 통폐합 타당성 있나”

신보-기보 ‘영역 다툼’ 질타

이날 국회 정부위의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 두 기관의 통합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부산 지역 의원들은 통합이 중소기업 상황을 악화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두 기관을 통합하면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 중소기업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반대 잡으려다 추가삼각을 태우는 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신숙 의원은 “통합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일개 부서로 격하되면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이 성장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할 수 있다”고 같은 당 이성남 의원 역시 “우리나라의 기술보증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두 기관은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 허태열(부산 북·강서을) 의원도 “중소기업의 일반 은행 대출이 막힌 상황에서 통폐합 문제는 금

융위기를 확대하고 지역갈등을 일으킬 것이 뻔하다”면서 “지금 시점에서 통폐합 논의는 검토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통폐합 논리는 중복보증을 없애자는 것인데 중복보증 잔액비율이 2005년 53%에서 올해 9월 14.3%로 급감하는 등 줄어든 상황에서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이진복(부산 동래) 의원은 “중소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에 반대하는데 무리하게 추진해야 하는 나”면서 “두 기관은 역할이 다른 만큼 설립취지에 맞게 재정비하고 기보의 기능을 더 특화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하러면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운선 의원은 “통폐합 반대는 비효율의 대명사로 꼽히는 공기업의 개혁을 바라는 여론 앞에서 힘을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고, 권택기 의원은 “두 기관의 영역 싸움과 중복기능 문제를 해결하려면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태 의원은 “두 기관은 설치목적과 주요업무가 유사하고 업무조직이 상당 부분 중복돼 있다”면서 “기능 중복을 제거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



안택수(왼쪽) 신용보증기금 이사장과 진병화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부위원회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하러면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운선 의원은 “통폐합 반대는 비효율의 대명사로 꼽히는 공기업의 개혁을 바라는 여론 앞에서 힘을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고, 권택기 의원은 “두 기관의 영역 싸움과 중복기능 문제를 해결하려면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태 의원은 “두 기관은 설치목적과 주요업무가 유사하고 업무조직이 상당 부분 중복돼 있다”면서 “기능 중복을 제거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

안택수 신보 이사장은 의원들의 일단 추궁에 “금융위기 상황이 진전된 뒤 통합을 논의한다는 것이 좋겠다”면서 “만약 정부가 통폐합을 한다고 판단하면 두 기구의 조직과 기금을 완전히 통합하는 방안을 선호한다”고 답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상임위원장 개성있는 국감 진행 ‘톡톡튀네’

국회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면서 국감장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상임위원장의 회의진행 스타일이 국감장 주변에서 회자되고 있다.

위트있는 회의진행으로 여야 충돌 위기를 부드럽게 넘기는가 하면, 다른 위원들보다 더 거세게 피감기관을 몰아세우기도 하고 ‘현장 속으로’ 국

감을 주도하는 등 각양각색의 스타일을 보이고 있는 것.

이낙연(민주당)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은 13일 수협 국감에서 수협중앙회장이 모르쇠로 일관하자 “국감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지적하는 등 기자 출신다운 촌철살인의 표현으로 눈길

을 끌었다.

유선호(민주당) 법제사법위원장은 법안 처리나 국감 증언체력과정에서 단 한번도 표결처리를 하지 않는 등 ‘여야 합의제 처리’를 신념으로 상임위원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지적하는 등 기자 출신다운 촌철살인의 표현으로 눈길

www.hanbitgosi.co.kr

공무원 합격의 대세

9급 이론출수반 **7급** 실용출수반

합격률이 말하는 최고의 강의 스타

행정직/세무직/법원직/검찰직/교정직/보호직

= 최고가 되려면 최고를 따라가라! =

전국 최고의 시설 대형학원! 공무원 수험생은 한빛에 다 있다!

한빛고시학원

광주 전남대 후문 복구청앞 (062)234-0234

개강 11월 3일

공무원합격 압도적 1위

최단기 필수업그레이드 필수과정 한짱단과반

주부/대학생/직접인을 위한 9급 야간특설반

교육행정/농업직/기술직/사회복지/출판직

유네스코 인정 정규 대학교

SCU한의대

www.scukorea.com

문의전화 010-6834-6253

한의대 유학! 국내에서 가능!

캐나다, 미국 한의사가 될수 있습니다!

취업 고민해결! 아메리카대륙에서 성공을!

입학상담/설명회 매일 오후 3시, 4시

=전통47년!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 명교수진의 환상의 강좌(직접확인요)=

7.9 급 공무원 합격 대비

직종별 교재관람검출출교보보복소기 정육무세원찰공판정건호지방술

'09년 시험은 지금부터

개강 11월 1일(주·야간반 모집)

합격 회원 모집

6개월:90만원(교재17만원포함) 주·야간반+기초(英·國)문법특강 ※수강료가 저렴, 필수합격 확신했.

무등고시학원

www.mdgosi.co.kr 222-4560

새롭고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서구점 ☎ 361-8111 북구점 ☎ 268-8111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전국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50명의 출제 위원급 교수진과 36개학원 네트워크를 통해 합격시키는 강의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개강 11월 3일(주,야) 주부반, 성인반 국비무료 재직자반

처음시작하신분 위한 기초이론 강좌 연회원 등록시 선착순 50명 수강료 특별할인

고용보험재직자 교육비환급 선착순 60명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전국33개 학원제인) ●최고의 교수진들로 강의 질하는 학원1위 ●선배합격자분들이 추천한 1등학원 ●믿음과 신뢰를 주는 학원1위

새롭고 행정고시학원

서구점 ☎ 361-8111 북구점 ☎ 268-8111

▶농성동 서구청 앞 광주은행 건물 2층 ▶확장이전, 오차동 북부경찰서 건너편 새로빌딩 4층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44년 전통 합격률 1위 ●본원출신 전국수석 (송은영님 평균 96.7점)

"2009년 20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는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준비하십시오"

기초과정 → 기본이론 → 심화이론 → 핵심요약 최종문제풀이

개강 11월 3일 기초이론 & 용어 해설

"년회원 수강 등록시" 주부반, 성인반 수강료 20% 할인혜택 (60명) (주간반, 야간반)

직업인을 위한 고용보험 환급과정 본원 ☎ 227-8003 전남여고 맞은편 3F

국비무료 개강 11월 3일 원단점 ☎ 971-0002 (구백마초교 옆 중주은행 4F)

광주·전남 학령기 아동 정신질환 비율 낮아

(7~19세)

국감브리핑

1%대 전국 평균 이하

광주와 전남도의 학령기 아동(7~19세) 중 정신질환자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15일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의 학령기 정신질환자는 5천580명, 전남도는 4천830명이었다.

이는 광주의 경우 전체 학령기 아동 29만504명의 1.92%, 전남도는 32만5천964명의 1.41%로 전국 평균 2.06%보다 낮은 수치다.

또 광주는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7위였고 전남은 가장 낮아 비교적 부유한 지역의 정신질환자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더욱이 지난 2004년부터 3년간 지역전문가 특별전용으로 채용한 11명을 제외하면 지방대 출신은 단 10명, 2%에 불과했다. 한국은행은 올해도 35명의 신입행원과 11명의 경력직원을 채용했는데 이 가운데 지방대 출신은 단 한 명뿐이었다.

“한은 지방대 출신 극소수”

지난 9년간 한국은행 신입행원 가운데 지방대 출신은 4.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광주지역 대학 출신은 단 한 명도 없었고 전남지역 대학 출신자는 3명뿐이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효석(사진) 의원이 15일 배포한 한국은행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9년간 한국은행의 대졸 신입행원은 모두 491명으로서 이 중 95.7%인 470명이 서울소재 대학 출신이고 지방대 출신은 21명(4.3%)에 불과했다.

더욱이 지난 2004년부터 3년간

“노인·치매환자 月660명 실종”

노인과 치매환자들이 매달 평균 660명 가장 실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1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노인·장애인 가출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실종된 60세 이상 노인과 치매환자는 모두 합쳐 2만9천24명으로, 연평균 7천930명, 월평균 660명에 달하는 수치”라고 밝혔다.

/박지경·김지용기자 jkpark@

정경유착 의혹 제기 등 ‘야성’ 유감없이 발휘

국감인물

행안위 최인기 의원

행정부처장관 출신으로 평소 굵직한 의정 활동을 펼쳐왔던 최인기 민주당 의원(나주·화순·사진)이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정부를 상대로 야당의원으로서의 ‘야성’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지난 8일 최인기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1994년 이후 15년 이상 지연됐던 잠실 제2롯데월드 건설 문제가 이명박 대통령이 이 당선되자 건축허가가 떨어졌다”고 지적한 뒤 “특히, 롯데그룹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구를 그룹 총괄 사장으로 앉혔으며 그동안 제2롯데월드 건립에 반대했던 공군참모총장이 전격 경질됐다”며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 행안부 관계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또, 지난 14일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최 의원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 김문수 경기지사를 면전에 대놓고 “국가 전체의 발전을 무시하고 지역이기주의, 지역 영웅주의에 몰입하는 사고”라고 정면 비판, 국감장을 순식간에 일촉즉발의 긴장 속으로 몰아넣기도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